

회원사 산업현장 견학 회원 상호 협력증진 도모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동안 회원사

산업시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분야의 관련업무



〈회원사 실무부사장 40명이 참가하여 울산공업단지 산업현장을 견학하였다〉

를 위한 협력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사 실무부서의 책임자 40명을 초청하여 울산공업단지의 현대자동차 공장시설과 산업현장을 견학하였다.

공장 안내자의 자동차 생산 공장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작된 현장견학은 진지한 분위기속에 참가자들이 공장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보면서 자동차 생산 시설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는 등 관심도와 열의가 대단하였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산업현장 견학을 통해 그동안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된 것을 매우 만족해하고 앞으로도 이런 산업현장 견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장견학이 끝난후 그 다음날 참가자들은 경주에 있는 유적지를 견학하여 조상의 일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잠시나마 각자의 업무를 떠나 휴가분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WEC 기술분과위원회 참가

첨단기술이용 에너지효율개선 위원회 포항공대 이인범 교수 참석

“첨단기술을 이용한 에너지효율개선 위원회” 한국측 위원인 포항공대의 이인범 교수가 지난 1월 17, 18일 양일간 미

국 Berkely 대학에서 개최된 이 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석하였다.

먼저 Berkely大 Levine박사(부위원

장, 위원장은 동경대 Ishii교수)가 작년 6월 동경에서 개최하였던 제1차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개요를 설명하였다.

이인범 교수는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제철소에서의 에너지 최적배분」과 「제철소 산소공장의 on-line 최적화」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철강산업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측 위원들이 자국의 철강산업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전동모터산업, 캐나다와 프랑스의 제지산업, 이태리의

세라믹산업에서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소개하였다.

오후에는 일본과 독일의 교통제어시스템을 통한 수송분야 에너지절약사례 발표와 동경대 Hirose교수의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일본의 정보기술 발표가 있었다. 이어 일본 제지산업에서의 CIM 사례와, 일본·독일의 전력관리현황 소개가 있는 후 각 사례 발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있었다.

18일에는 독일, 미국, 스웨덴, 프랑스에서의 건물 에너지관리와 지능건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Pacific Gas and Electric Energy Center를 방문하여 건물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각종설비와 지원책에 대한 소개를 받고 현장도 시찰하였다.

도시쓰레기 이용 에너지생산 위원회

에기연 박영재, 박순철 팀장 참석

“도시쓰레기이용 에너지생산”(Urban Waste Generated Energy) 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4월 11일 런던에서 열려 한국측 위원으로 지명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박영재 팀장(기기응용연구팀)과 박순철 팀장(바이오매스연구팀)이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별로 준비한 보

고서를 검토하고 '95년 WEC 동경총회 시 제출할 보고서 작성방안 등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다. 협의결과 소각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의 Otani 박사와 박영재 팀장이, 쓰레기매립(landfill) 및 바이오 가스화는 브라질의 Monteiro씨와 박순철 박사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정리 및 조정은 위원장인 Gouse박사(미국) 등이

담당키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도시쓰레기의 특성, 제지·유리·금속관련 리사이클링의 한계, 각종 폐기물의 매립처분 관련 문제, 농업용원자재 및 에너지원으로서의 도시쓰레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95년 WEC 동경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활양식 및 기술개발 위원회

에경연 김종달 박사 참석

“에너지수요, 생활양식변화 및 기술개발”(Energy Demand, Life Style Changes and Technology Development)위원회 한국측 위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종달박사는 지난 5월 16~17일 양일간 네덜란드 Petten에서 열린 이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내용은 연구진행 비교와 국가간 연구내용의 일관성에 관한 것이었다. 위원장(Dr. Bruggink)이 연구개념 및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네덜란드

한국 미국 스웨덴 인도 등 각국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 연구의 특이한 점은 직접적인 에너지소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에너지소비(예: 음식, 교통 등)의 분석이며, 그것도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 연계(chain) 개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에너지소비(money)를 시간(time)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Life-Style 변경을 통한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추정한다.

기존의 에너지 고효율기기가 이미 많

이 보급되고 있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기기효율 개선보다도 우선하여 Life-Style의 변화에서 에너지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연구분야이기도 하다. 실제로 Life-Style 연구그룹이 EU내에 구성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후연구과제 및 일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며, 차기 회의는 금년도 11월 인도에서 개최키로 하였다.